

##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는 92.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8.0% 감소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3.8%, 경공업 부문 9.6% 각각 감소
  - 서울의 9월 제조업부문 출하, 재고 각각 감소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39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9월 추석 명절로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2005=100)로 전월대비 1.1%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2.6%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7%,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2.1% 각각 상승

##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4%p 증가한 73.0%로 나타남
- 서울의 9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7천명(3.3%)이 증가한 4,960천명임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2천명(2.6%), 여자는 85천명(4.1%)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0%로 보합이며, 전국대비(-1.5%) 1.5%p 차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8%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보합,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9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자는 0.2%p 하락한 4.9%, 여자는 0.4%p 상승한 3.6%으로 나타남
  - 서울의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4%p 하락, 여자는 1.6%p 각각 상승
  - 서울의 실업률(4.3%)은 전국 실업률(3.4%)과 0.9%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9.1%)과 전국(59.1%)이 보합인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 서울의 9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1,01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1.5%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토지조성 및 상하수도, 기타건축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7.8%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주택 및 사무실 재건축주택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74.8% 증가
- 9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2%)의 주택매매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세는 둔화됨
- 9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모든 지역에서 상승
  - 서울(0.7%)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강북지역(0.6%)와 강남지역(0.8%) 모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금융**

- 서울지역 8월의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8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8조 3,377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566억원(0.20%) 증가
-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9월 신설법인수는 1,485개로 전년동월대비 20.8%(391개) 감소하였고, 전월대 비로는 11.9%(201개) 감소하였음
- 서울의 9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9월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15.5%(9개) 감소
- 서울의 9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수출은 37.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3%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 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등의 순
  - 서울의 9월 수입은 89.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5.7%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순

## | 생 · 산 |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9월 산업생산지수는 92.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8.0%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기장비(16.2%)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1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12.8%) 등에서 감소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경공업 부문 각각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며 4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하여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등

## ■ 전국의 9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9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전월대비로는 0.4% 감소
- 부문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18.2%)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1.4%), 기계장비(20.7%) 등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8.6%), 보건사회복지(7.0%), 운수(4.4%)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임대(-18.2%), 전문·과학기술(-11.2%), 교육(-6.5%) 등의 부진으로 0.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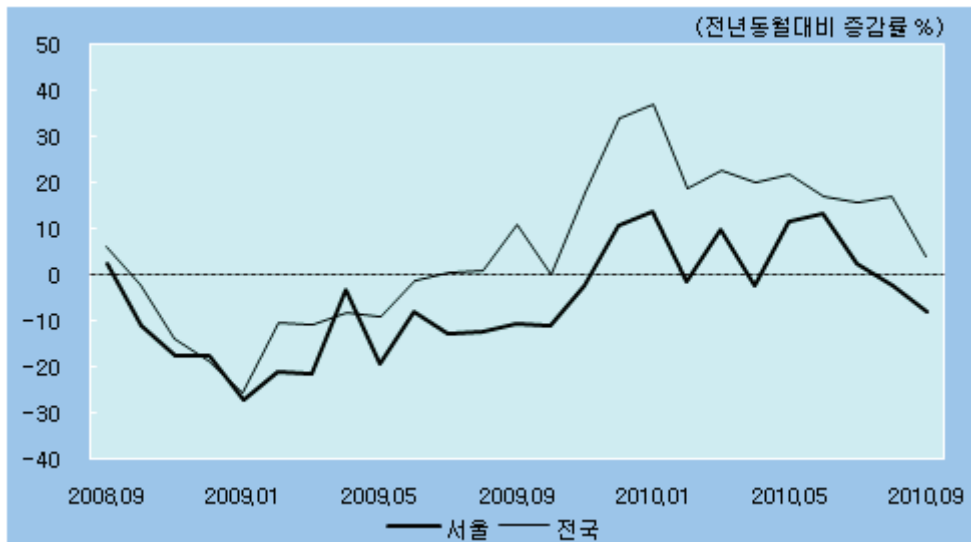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10.4	11.6	13.5	2.7	-2.3	-8.0
	중공업	-30.7	0.5	-3.7	-2.4	-12.7	-3.8
	경공업	1.4	17.8	24.4	5.4	3.4	-9.6
	전국	11.1	21.7	17.2	15.6	16.9	3.9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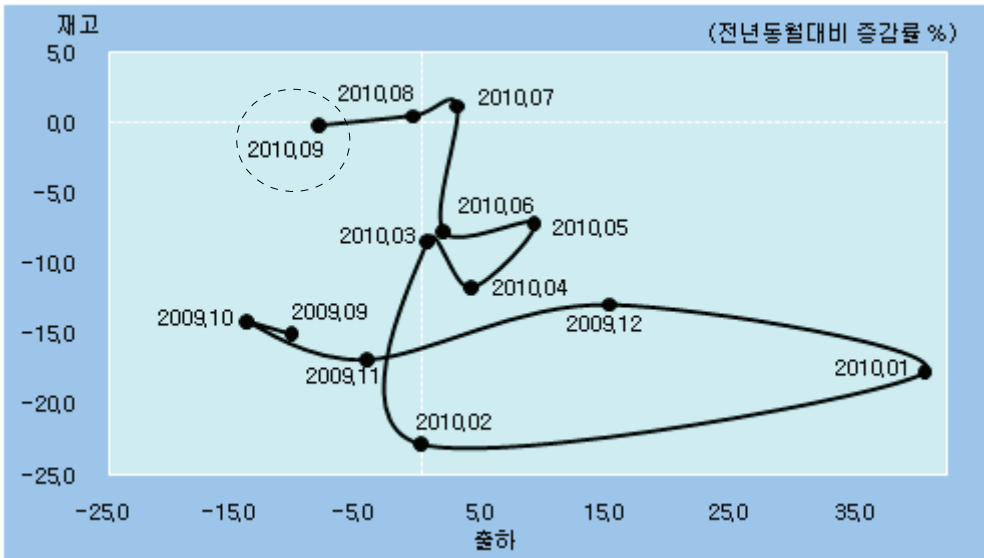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9월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의 9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출하 각각 감소
  - 서울의 9월 재고지수는 158.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 등 감소 함
  - 출하, 재고 각각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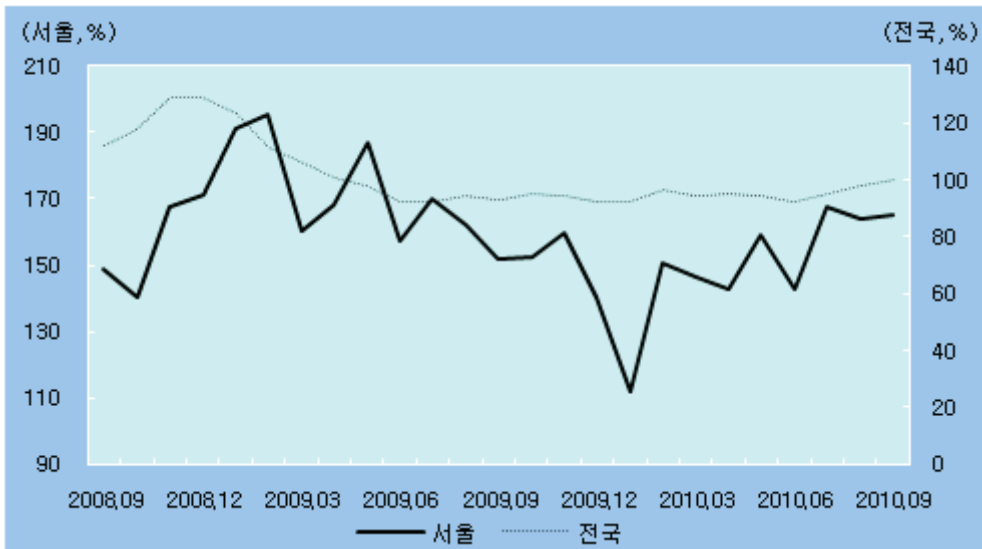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증가, 부문별로는 중공업 증가, 경공업 감소
  - 서울의 9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65.3%로 전월대비 1.1%p 증가하였고, 전국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100.1%로 전월대비 2.4%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4.3%p 증가한 159.9%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4.3%p 감소한 161.7%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재고율	서울	152.0	159.2	142.8	167.4	164.2	165.3	1.1
	중공업	136.9	174.0	136.2	164.2	145.6	159.9	14.3
	경공업	151.3	150.7	142.9	164.5	166.0	161.7	-4.3
	전국	92.8	94.1	92.3	95.2	97.7	100.1	2.4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률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39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7.2% 증가, 대형마트 14.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9월 추석 명절로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명절용품 판매 증가로 대형마트의 증가폭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짐

## ■ 전국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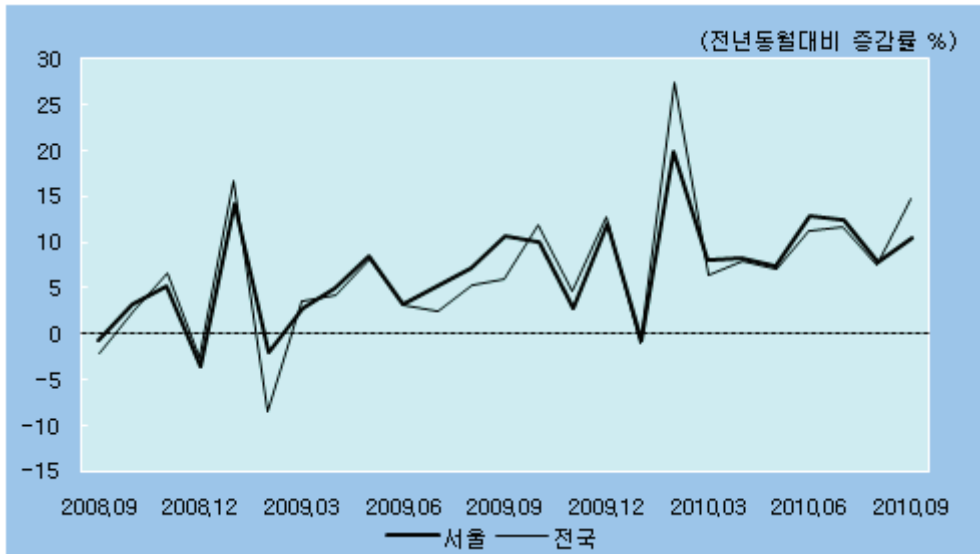
- 전국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3,037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6.1% 증가, 대형마트는 10.5% 감소함
- 유형별로는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8.0%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7.1%,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0% 각각 증가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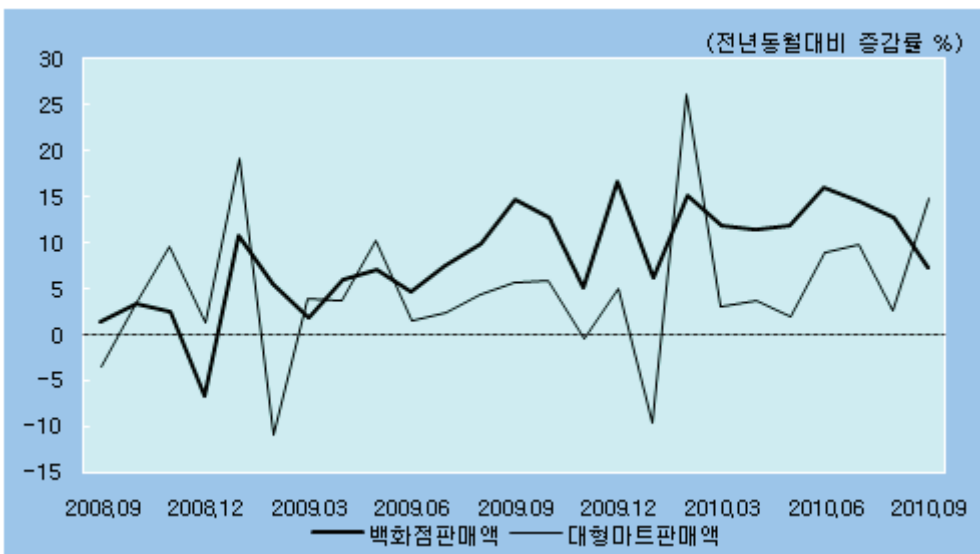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판매액	서울	1574.4 (10.7)	1629.2 (7.5)	1535.3 (12.9)	1508.9 (12.4)	1426.0 (7.9)	1739.2 (10.5)
	백화점	899.1 (14.7)	956.6 (11.8)	887.9 (16.0)	839.0 (14.5)	792.0 (12.7)	964.2 (7.2)
	대형마트 (할인점)	675.2 (5.7)	672.6 (1.9)	647.3 (9.0)	669.9 (9.9)	634.0 (2.5)	775.0 (14.8)
	전국	4618.6 (5.9)	4882.9 (7.0)	4529.9 (11.2)	4624.3 (11.6)	4385.2 (7.6)	5303.7 (14.8)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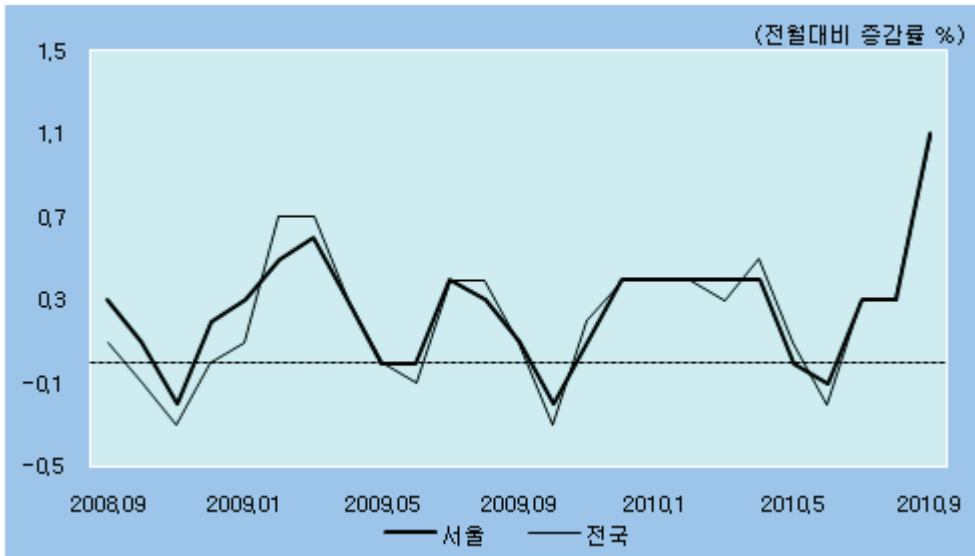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전도시:117.6, 2005년=100)로 전월대비 1.1%(전도시: 1.1%), 전년동월대비 3.5%(전도시:3.6%) 각각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6.0% 각각 상승, 서비스의 경우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 서울의 9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7% (전도시:1.5%), 전년동월대비 3.9%(전도시:4.1%)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2.1% (전도시:19.5%), 전년동월대비 44.8%(전도시:45.5%) 각각 상승
  
- 전국 9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9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
  - 전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6(2005년=100)으로 전월대비 1.1% 상승하여 2003년 3월의 1.2% 상승이후 9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4.1%, 전년동기대비 3.1%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 모두 0.9~1.3%씩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서울	0.1 (2.4)	0.4 (2.5)	0.0 (2.5)	-0.1 (2.4)	0.3 (2.4)	0.3 (2.5)	1.1 (3.5)	
	상품 성질별	상품	0.2 (3.0)	0.9 (3.2)	-0.3 (3.1)	-0.3 (3.2)	0.6 (3.2)	0.7 (3.5)	2.6 (6.0)
		서비스	0.0 (2.2)	0.2 (2.1)	0.2 (2.2)	0.0 (2.1)	0.3 (2.0)	0.1 (1.9)	0.4 (2.2)
	생활물가	0.2 (2.0)	0.5 (2.7)	-0.3 (2.6)	-0.4 (2.5)	0.3 (2.4)	0.3 (2.4)	1.7 (3.9)	
	신선식품	-1.6 (5.8)	6.2 (10.5)	-4.2 (7.9)	-7.3 (9.3)	4.7 (12.5)	5.5 (16.6)	22.1 (44.8)	
	전국	0.1 (2.2)	0.5 (2.6)	0.1 (2.7)	-0.2 (2.6)	0.3 (2.6)	0.3 (2.6)	1.1 (3.6)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10월 신선식품 중 무, 파, 마늘 등의 채소류 가격 큰 폭 상승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0.54%으로 상승, 나머지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2.5% 상승
- 청과류 중 무는 26.7%, 파는 19.6%, 마늘 7.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배추의 경우 전월대비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7.9% 상승, 양곡류인 쌀은 1.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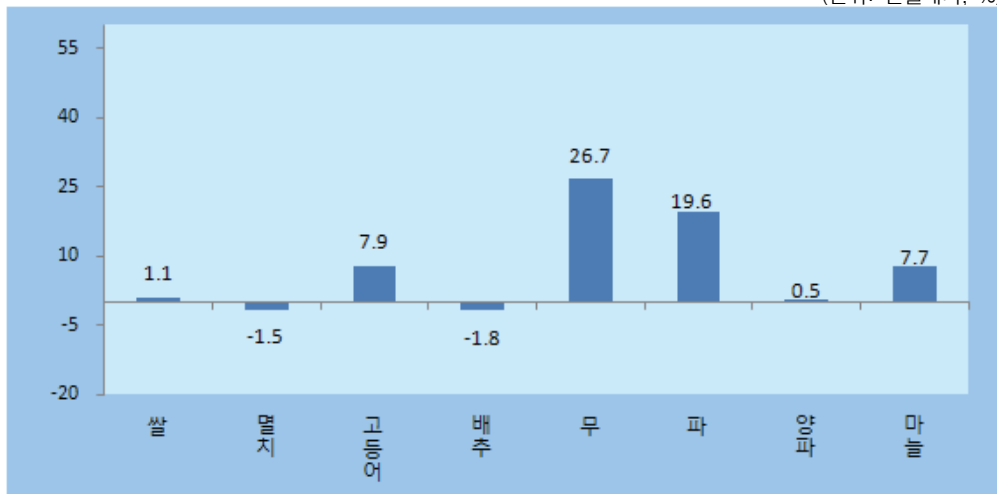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율
양곡	쌀	41,831	41,901	42,143	41,968	42,435	1.1
	멸치	2,415	2,574	2,463	2,582	2,543	-1.5
수산	고등어	3,000	2,568	2,500	2,500	2,714	7.9
채소	배추	3,405	4,560	4,903	7,816	7,679	-1.8
	무	1,872	2,231	2,646	2,983	4,069	26.7
	파	3,052	2,820	2,315	4,766	5,927	19.6
	양파	1,553	1,620	1,592	1,717	1,726	0.5
	마늘	6,982	9,787	10,713	11,383	12,329	7.7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고랭지(상품), 봄(상품)), 무(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 서울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서울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9월 15세이상 인구는 8,39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0.7%)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18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8천명(3.4%)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73.0%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하였으며, 남자는 51.2% 여자는 61.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천명(-3.3%)이 감소

## ■ 전국의 9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 9월 15세이상인구는 40,6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0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9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1천명(1.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14천명으로 121천명(0.8%)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397천명으로 160천명(1.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1.7 (0.1)	2.0 (1.5)	2.3 (0.5)	1.7 (-0.1)	2.7 (0.7)	3.5 (-1.2)	3.4 (0.0)
	남자	-1.6 (-0.2)	1.4 (0.9)	0.4 (-0.3)	0.1 (0.2)	1.3 (0.8)	2.6 (-0.5)	2.4 (-0.4)
	여자	-1.8 (0.5)	2.8 (2.3)	5.0 (1.5)	3.8 (-0.5)	4.6 (0.6)	4.6 (-2.0)	4.6 (0.6)
	전국	0.7 (0.4)	1.6 (2.0)	1.8 (1.0)	0.9 (0.2)	1.9 (0.3)	1.3 (-1.6)	1.1 (0.3)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71.6	73.2	73.0	73.1	73.6	73.2	73.0
	남자	49.4	51.3	52.1	51.8	52.0	51.0	51.2
	여자	61.3	61.4	61.9	62.0	62.1	61.1	61.2
	전국	61.2	60.3	61.4	61.9	62.0	62.1	61.1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 · 업 · 자 |

## 서울의 9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9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9월 취업자는 4,9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7천명(3.3%)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26천명, 여자는 2,1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2천명(2.6%), 여자는 85천명(4.1%)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천명(46.4%), 건설업 56천명(16.0%), 제조업 45천명(9.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8천명(3.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5천명(3.5%)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38천명(-2.8%)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0%으로 보합이며, 전국대비(-1.5%) 1.5%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8%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 전국의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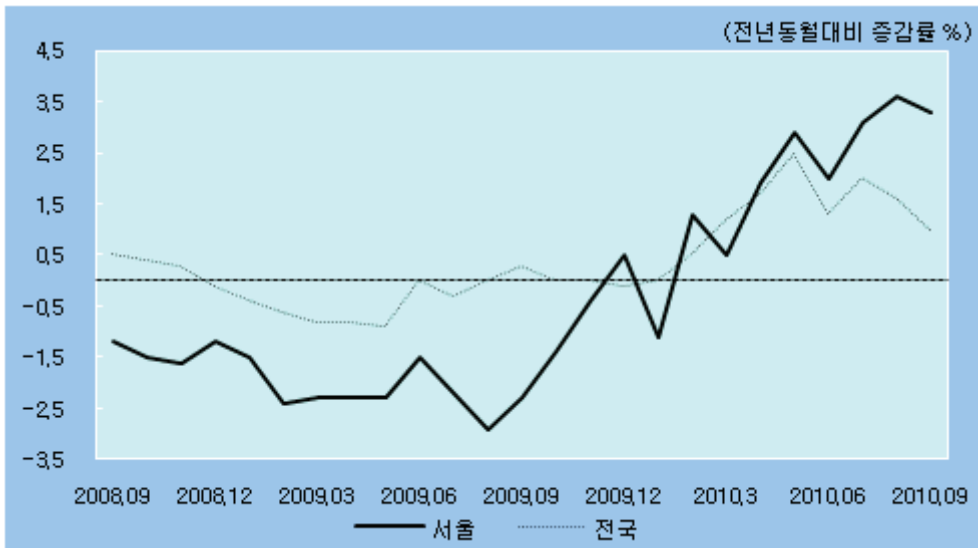
- 전국의 9월 취업자는 24,0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9천명(1.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천명(1.2%)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55천명으로 88천명(0.9%)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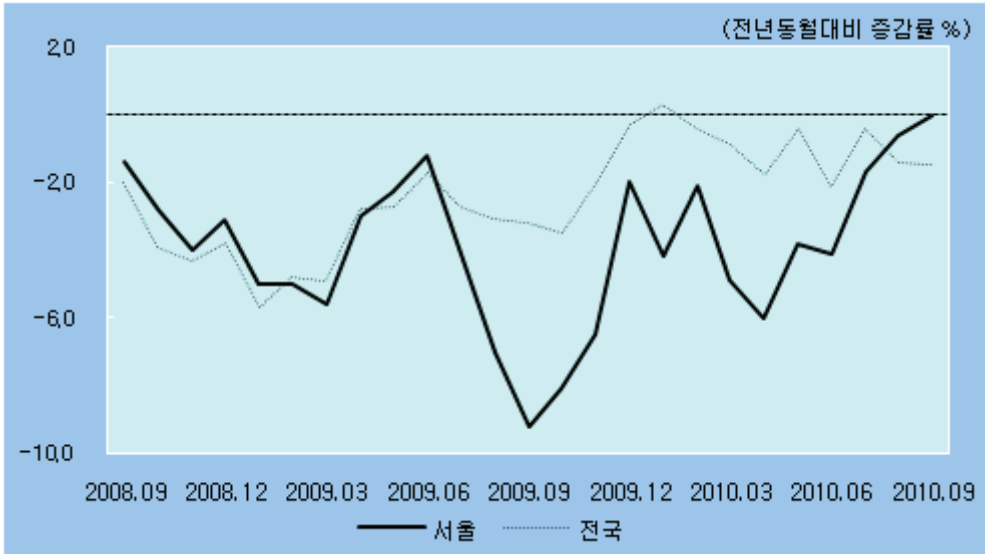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	서울	-2.3 (0.3)	1.9 (1.6)	2.9 (1.4)	2.0 (-0.1)	3.1 (0.5)	3.6 (-1.0)	3.3 (0.0)
	남자	-2.6 (0.0)	1.0 (0.6)	0.6 (0.9)	0.5 (0.3)	2.0 (0.7)	3.0 (-0.4)	2.6 (-0.4)
	여자	-2.0 (0.8)	3.1 (3.1)	6.0 (2.1)	4.1 (-0.6)	4.6 (0.2)	4.5 (-1.8)	4.1 (0.4)
	전국	0.3 (0.8)	1.7 (2.3)	2.5 (1.6)	1.3 (-0.1)	2.0 (0.1)	1.6 (-1.2)	1.0 (0.2)
청년층 취업자	서울	-9.2 (-3.3)	-6.0 (2.6)	-3.8 (4.4)	-4.1 (-1.2)	-1.7 (1.8)	-0.6 (-2.9)	0.0 (-2.8)
	전국	-3.2 (-1.9)	-1.8 (2.0)	-0.4 (3.1)	-2.1 (-1.9)	-0.4 (3.1)	-1.4 (-4.0)	-1.5 (-2.0)
고령층 취업자	서울	5.7 (3.7)	13.6 (4.5)	16.2 (2.9)	7.8 (-0.4)	10.6 (0.8)	8.9 (-2.3)	7.8 (2.7)
	전국	4.1 (2.0)	4.0 (9.4)	5.8 (4.8)	2.4 (0.9)	3.4 (-1.1)	1.7 (-1.5)	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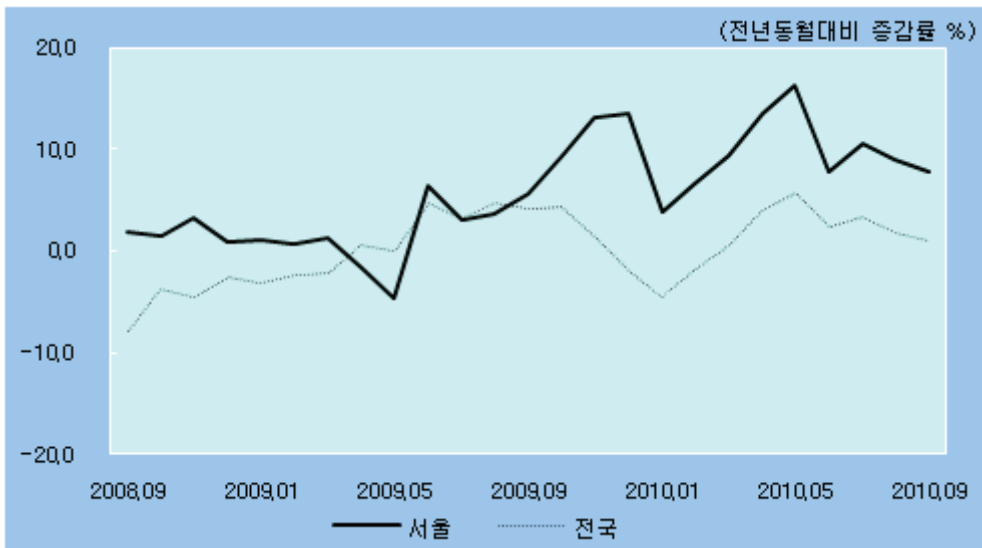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천명(116.1%),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99천명(16.0%), 사무종사자 7천명(0.8%)이 각각 증가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1천명(-2.9%), 서비스·판매종사자 14천명(-1.1%)이 각각 감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187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0천명(-0.8%)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7천명(4.6%)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2.6%)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7천명(10.2%)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4천명(4.2%), 임시근로자는 83천명(7.2%)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0.3천명(-0.1%)이 감소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일시휴직자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명(10.3)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2.4%)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천명(7.5%)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41천명(11.9%)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4천명(3.8%)이 증가하였으나,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4천명(-0.3%)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1.7%)이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별	제조업	-21.7 (-1.1)	5.1 (3.1)	0.5 (-0.1)	5.1 (-0.4)	5.6 (-0.8)	9.0 (-0.6)	9.2 (-0.8)
	SOC 및 기타서비스업	0.4 (0.5)	1.5 (1.5)	3.2 (1.6)	1.7 (-0.1)	2.8 (0.6)	3.0 (-1.1)	2.6 (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0 (-0.5)	2.8 (3.5)	4.5 (2.0)	2.0 (0.5)	3.3 (0.9)	2.2 (-2.8)	3.5 (0.7)
	도소매·음식숙박	0.6 (1.5)	-0.4 (-1.0)	2.8 (2.4)	-2.5 (-4.2)	-0.7 (1.9)	-0.8 (-0.1)	-2.8 (-0.5)
	전기·운수·통신·금융	3.7 (1.2)	4.0 (0.7)	3.3 (0.0)	6.5 (2.8)	3.1 (-3.9)	5.0 (0.2)	3.8 (0.0)
	건설업	-20.1 (0.4)	-3.6 (2.4)	-2.2 (0.2)	5.2 (6.1)	13.1 (4.1)	18.0 (2.0)	16.0 (-1.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6 (0.1)	0.2 (2.0)	1.2 (0.0)	0.3 (1.1)	-0.2 (0.1)	-2.3 (-3.0)	-2.9 (-0.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조종사	-11.9 (-0.1)	10.6 (4.0)	10.4 (2.5)	10.0 (-0.2)	13.7 (1.2)	15.1 (-1.1)	16.0 (0.7)
	서비스·판매종사자	-0.8 (0.6)	-2.4 (-1.1)	-0.9 (1.5)	-4.7 (-3.0)	-3.4 (0.9)	-1.2 (0.5)	-1.1 (0.8)
	사무종사자	4.9 (1.0)	-2.1 (1.3)	-0.3 (1.8)	2.7 (2.1)	2.1 (-0.7)	3.5 (0.3)	0.8 (-1.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0 (0.5)	1.8 (2.0)	4.2 (2.3)	3.2 (0.1)	4.8 (0.8)	5.5 (-0.6)	4.6 (-0.3)
	비임금근로자	-3.2 (-0.3)	2.3 (0.7)	-1.0 (-1.3)	-1.4 (-1.0)	-1.8 (-0.6)	-2.1 (-2.2)	-0.8 (1.0)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서울의 9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포함,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9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포함

- 서울의 9월 실업자는 2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5.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1.2%)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80천명으로 13천명(18.8%)이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국의 9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9월 실업자는 8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3.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명(-7.2%) 감소하였고, 여자는 3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26.7%) 증가
-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과 포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자는 3.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3%p 상승

■ 서울의 9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의 고용률과 포함

- 서울의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4%, 여자는 49.4%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4%p, 1.6%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1%)과 포함
- 전국의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48.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60세미만 연령계층은 상승하였고, 60세이상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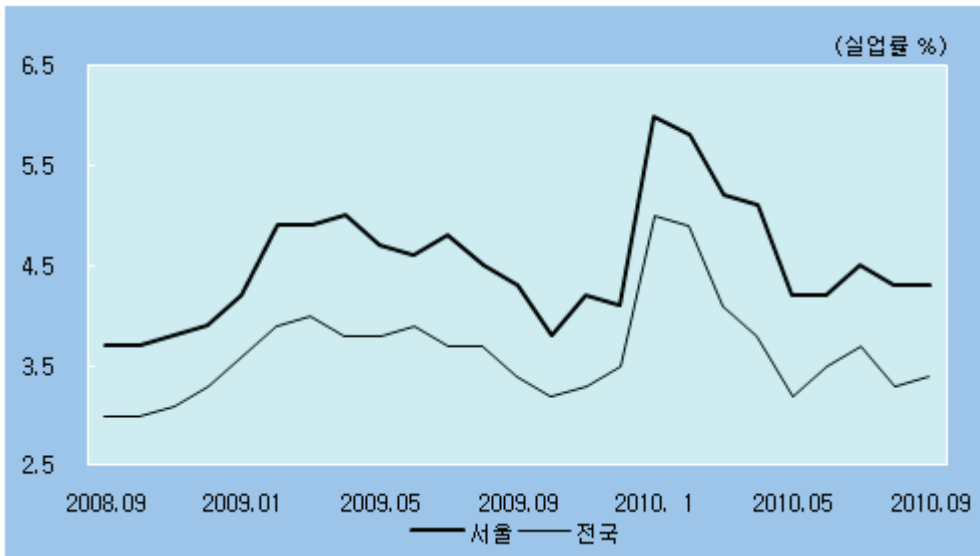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업률	서울	4.3	5.1	4.2	4.2	4.5	4.3	4.3
	남자	5.1	6.1	5	4.9	5	4.9	4.9
	여자	3.2	3.7	3.1	3.3	3.7	3.4	3.6
	전국	3.4	3.8	3.2	3.5	3.7	3.3	3.4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9	7.8	8.4	7.8	10.0	8.1	7.7
	전국	8.6	8.0	8.1	7.6	9.5	7.7	7.6
고령층 실업률	서울	2.0	3.2	2.0	1.7	7.2	4.3	3.1
	전국	1.6	1.9	1.6	1.5	5.8	2.1	2.0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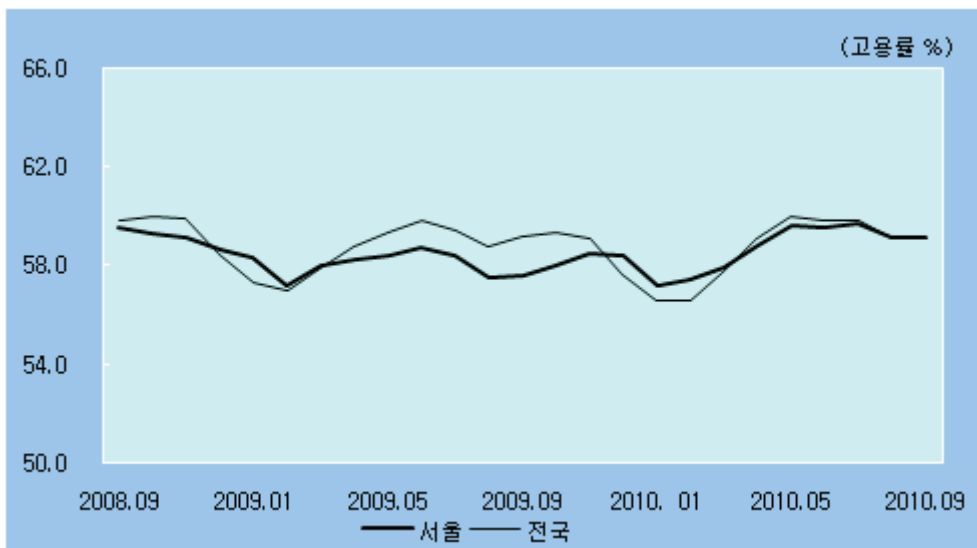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9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고용률	서울	57.6	58.8	59.6	59.5	59.7	59.1	59.1
	남자	68.0	68.8	69.3	69.5	70.0	69.6	69.4
	여자	47.8	49.4	50.4	50.0	50.1	49.2	49.4
	전국	59.2	59.1	60.0	59.8	59.8	59.1	59.1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3.9	45.6	43.8	42.8	42.8	44.1	44.0
	전국	39.9	41.1	40.7	40.1	40.1	40.8	40.6
고령층 고용률	서울	28.7	30.3	31.1	32.5	29.4	32.7	32.7
	전국	33.2	38.3	38.9	36.4	31.4	38.4	38.2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서울의 9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9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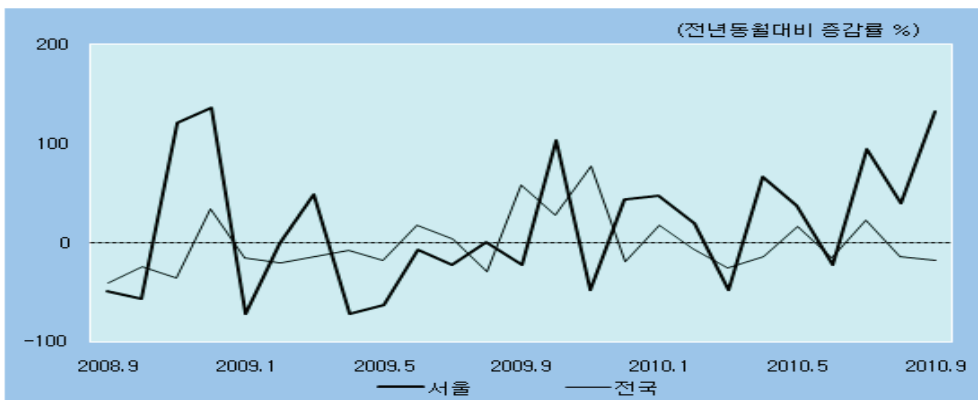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1,01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1.5%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 3,80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4%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8.5%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토지조성 및 상하수도, 기타건축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7.8%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주택 및 사무실, 재건축주택 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74.8% 증가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277.5% 증가하였으나 토목부문은 53.2%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서울	908	1,481	1,652	1,530	1,285	2,101	131.5	63.5	
발주자별	공공	297	26	331	231	71	185	-37.8	160.6
	민간	400	1,430	1,243	1,299	1,214	1,899	374.8	56.4
공종별	건축	507	1,406	1,437	1,419	1,150	1,914	277.5	66.4
	토목	401	75	215	111	136	188	-53.2	38.2
전국	9,050	8,354	9,877	7,346	4,010	7,381	-18.4	84.1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전국의 9월 주택매매가격 소폭 상승
  - 9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며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0.1% 상승함
-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2%)의 주택매매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세는 둔화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8월	8월	9월		
서울	102.1	101.7	101.7	101.6	-0.5	-0.2
아파트	102.3	100.8	100.8	100.5	-1.7	-0.3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1.3	101.0	100.7	-0.5	-0.2
	강남	102.9	102.6	102.4	-0.4	-0.1
전국	100.7	102.3	102.3	102.4	1.7	0.1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은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강북지역(-0.2%)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노원구(-0.6%), 은평구(-0.4%), 용산구(-0.3%), 성북구(-0.3%)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노원구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인근 강북구 미아뉴타운, 성북구 길음 뉴타운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 은평구(-0.4%)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은평뉴타운 3지구 입주물량과 불광3구역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8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함

#### ■ 강남도 6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낙폭은 축소

- 강남지역(-0.1%)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낙폭은 축소되며 강서구(-0.3%), 송파구(-0.3%), 영등포구(-0.2%), 구로구(-0.2%)를 중심으로 하락함
- 강서구(-0.3%)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개발 백지화 발표 이후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 영등포구(-0.2%)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해단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며 가격이 하락함

#### ■ 9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6개월 연속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0월 1일 기준)은 1,798.29만원으로 전월(1,801.78만원) 대비 하락한 수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87만원), 서초구(2,851만원), 용산구(2,553만원), 송파구(2,375만원), 양천구(1,934만원), 광진구(1,875만원), 강동구(1,851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5만원), 도봉구(1,100만원), 중랑구(1,127원), 강북구(1,146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 모든 지역에서 상승

- 전국의 9월 주택전세가격 가을 이사철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하며 상승세가 두 달 연속 확대됨
  - 그간 지방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상승률을 보여 왔던 서울(0.7%)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강북지역(0.6%)과 강남지역(0.8%) 모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며 지방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함
  
-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 모든 지역에서 상승
  - 강북지역(0.6%)에서는 용산구(1.6%), 노원구(1.0%), 마포구(0.9%), 은평구(0.8%), 등에서 상승함
  - 용산구는 이촌동 텍스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 및 가을 이사철 수요, 가을 신혼부부 수요로 물량 부족이 심화되며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 노원구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시기를 관망하며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 가을 이사철 및 신혼부부 수요,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 선호 등으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함
  - 마포구가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함에 따라 유입되는 신혼부부 및 직장인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북아현동 재개발 이주수요가 가세하며 가격이 상승함
  - 강남지역(0.8%)에서는 송파구(1.3%), 영등포구(1.2%), 강서구(1.1%), 강동구(0.9%), 가 상승을 주도함
  - 송파구가 신혼부부 수요 및 가을 이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잠실동 리센츠 주공2단지(5,536세대), 신천동 파크리오(6,864세대)의 입주 2년 도래로 전세 재계약 시점이 돌아옴에 따라 물량이 부족해져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함
  - 영등포구는 가을 이사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도림 16지구 개발 이주수요와 여의도, 강남 도심업무지구 출퇴근 수요 등으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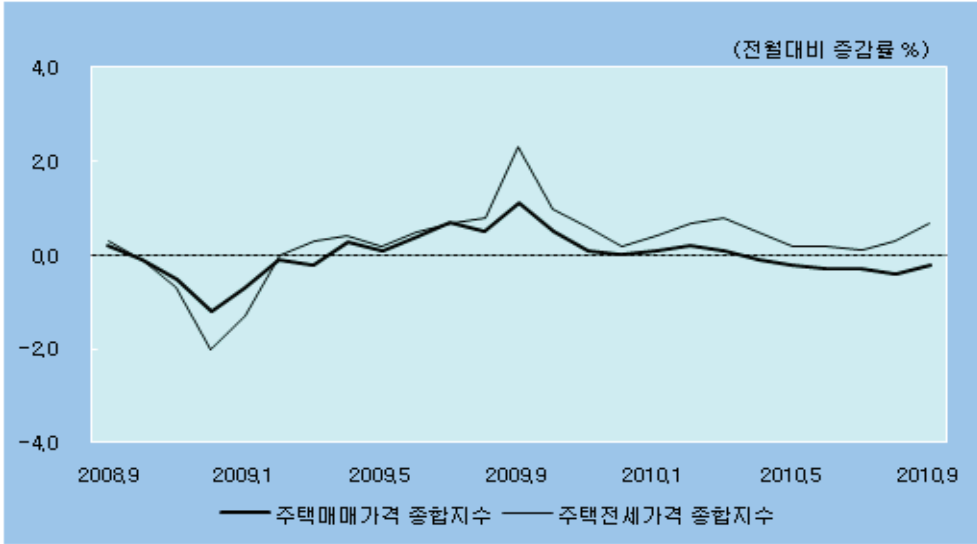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9월	8월	9월	9월		
서울	104.0	109.3	110.1		5.8	0.7
아파트	105.7	111.9	112.6		6.6	0.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2.5	106.7	107.3		4.7	0.6
강남	105.6	112.0	112.9		6.9	0.8
전국	101.8	107.2	107.9		6.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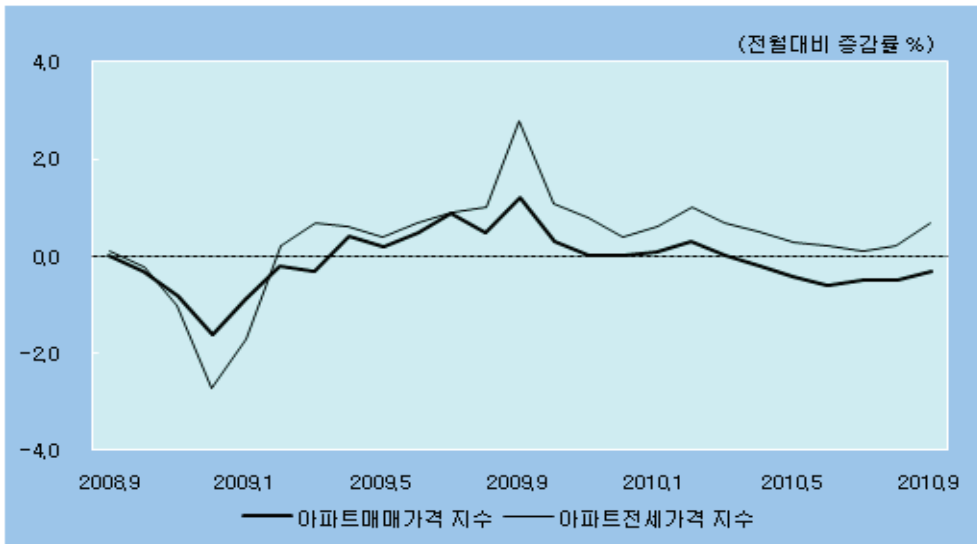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0%로 전월(42.6%)보다 0.4%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4월 41.5% → 5월 41.8% → 6월 42.1% → 7월 42.3% → 8월 42.6%)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6.0%보다 13.0%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3.1%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5.4%, 강남 40.9%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5%p이며 지난달과 같은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 9월 국고채 금리 하락세 지속

- 9월 중 국고채 금리 7월 이후의 내림세 지속
  - 9월 중 국고채(3년) 금리는 7월 이후의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10월 1일에는 3.26%까지 하락하여 사상 최저 수준(2004년 12월 7일 3.24%)에 근접
  - 기준금리 동결(9월 9일) 및 인상기대 약화, 수요우위의 수급여건 심화 전망 등에 기인함
  
-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CD(91일) 금리는 전월말 수준(2.66%)을 지속하다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10.12일 1bp 상승
  
- KOSPI 지수 빠르게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
  - 9월 들어 코스피는 미국 등 주요국의 추가 양적완화 예상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빠르게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
  - 10월 6일에 1,904p(2007년 12월 27일 1,909p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소폭 하락  
(5월말 1,641p → 6월말 1,698p → 7월말 1,759p → 8월말 1,743p → 9월말 1,873p)
  
- 9월중 외국인 국내주식 대규모 순매수
  - 9월 중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대규모 순매수하면서 주가상승을 주도  
외국인 순매수(조원): → 4월 5.5조원 → 5월 -6.3조원 → 6월 0.6조원 → 7월 3조원  
→ 8월 -0.6조원 → 9월 4.5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B-A)
	9월	6월	7월	8월(A)	9월(B)	10.25일		
금 리	국고채(3년)	4.4	3.75	3.88	3.73	3.48	3.29	-0.25
	CD(91일물)	2.64	2.45	2.58	2.63	2.66	2.66	0.03
	콜금리(1일)	1.99	2.00	2.21	2.27	2.27	2.25	0.00
	장·단기 금리차 <sup>1)</sup>	1.76	1.30	1.30	1.10	0.82	0.63	-0.28
주 가	KOSPI	1659.45	1,691.94	1,731.12	1,762.18	1,815.75	1,915.71	53.57
	KOSDAQ	523.16	493.3	490.97	475.35	482.36	525.86	7.01
환율 (W/US\$)	1,215.00	1,214.02	1,204.94	1,180.05	1,162.90	1,116.80	-17.15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9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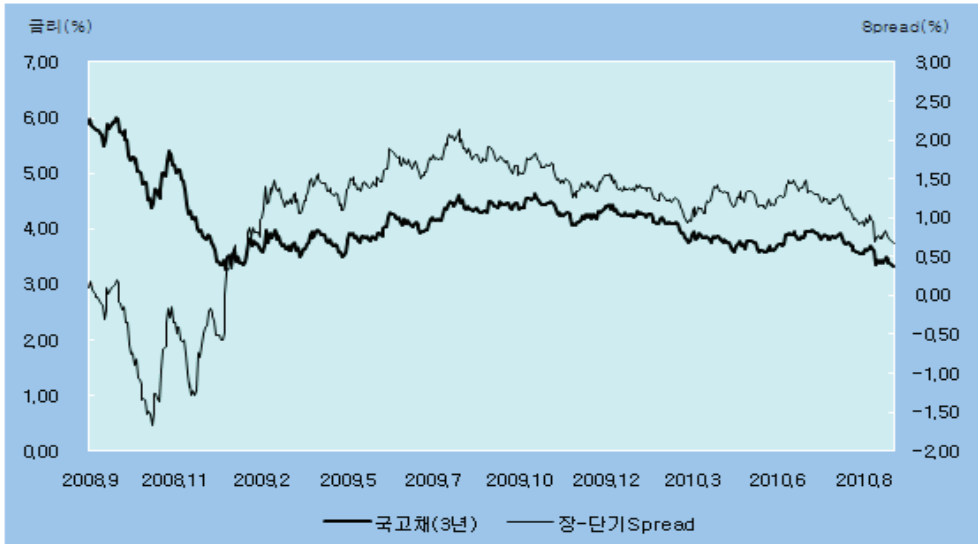
- 9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및 중도금대출 취급 증가 등으로 집담대출이 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추석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감소 전환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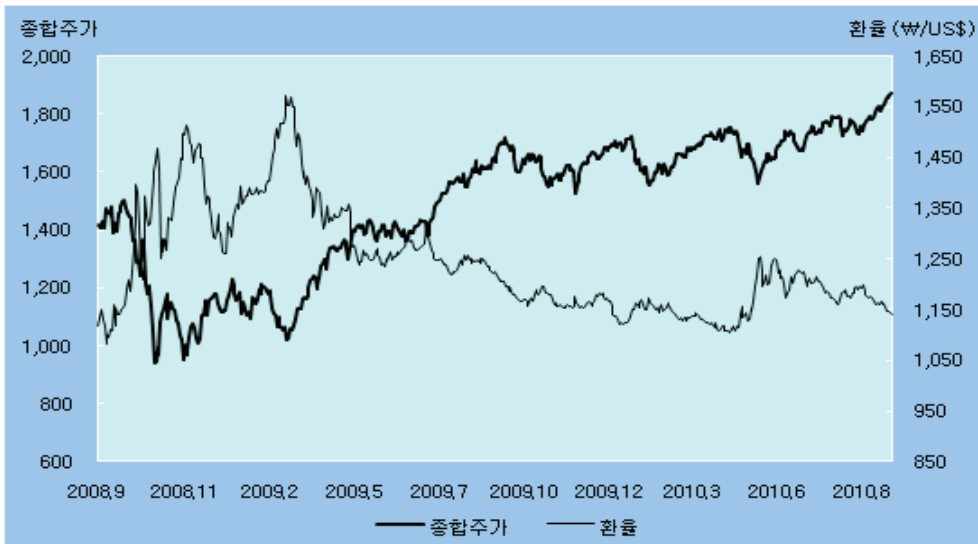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5월	6월	7월	8월	9월	2010년		
	8월							9월		
가계대출 <sup>1)</sup>	20.1	4.4	2.5	1.5	1.0	1.3	420.3	421.6	0.31	
주택담보대출 <sup>2)</sup>	25.4	1.7	2.5	2.2	-0.3	1.7	275.1	276.8	0.62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2.7	0.0	-0.8	1.3	-0.4	144.2	143.8	-0.28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8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8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8조 3,377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566억원 (0.20%) 증가
- 8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94조 9,988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651억원 (0.31%)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4월	5월	6월	7월	8월		
서울	예금은행	956,229.60	421,795.5	421,874.9	424,302.1	423,386.5	-915.6	-0.22
	비은행기관	293,680.40	94,591.8	92,695.8	92,980.0	94,951.2	1,971.2	2.12
	합계	1,249,910.00	516,387.3	514,570.7	517,282.1	518,337.7	1,055.6	0.20
전국	예금은행	420,959.50	974,047.5	975,225.8	978,910.0	978,486.6	-423.4	-0.04
	비은행기관	88,895.40	312,869.0	310,582.4	312,023.7	316,512.2	4,488.5	1.44
	합계	509,854.90	1,286,916.5	1,285,808.2	1,290,933.7	1,294,998.8	4,065.1	0.31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85개로 전년동월대비 20.8%(391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1.9%(201개) 감소하였음
  - 9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095개로 전월비로는 11.1%(510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21.1%(1,098개) 감소하여 지난달 증가에서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함. 이는 9월의 긴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9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22.2%(323개) 감소, 제조업이 9.7%(26개) 감소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35.1%(4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876	1,871	1,850	1,686	1,485	-201	-11.9	-391	-20.8
서비스업	1,471	1,438	1,412	1,310	1,148	-162	-12.4	-323	-22.0
제조업	269	300	313	264	243	-21	-8.0	-26	-9.7
건설 및 설비업	131	126	122	104	85	-19	-18.3	-46	-35.1
전국	5,193	5,448	5,260	4,605	4,095	-510	-11.1	-1,098	-21.1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의 9월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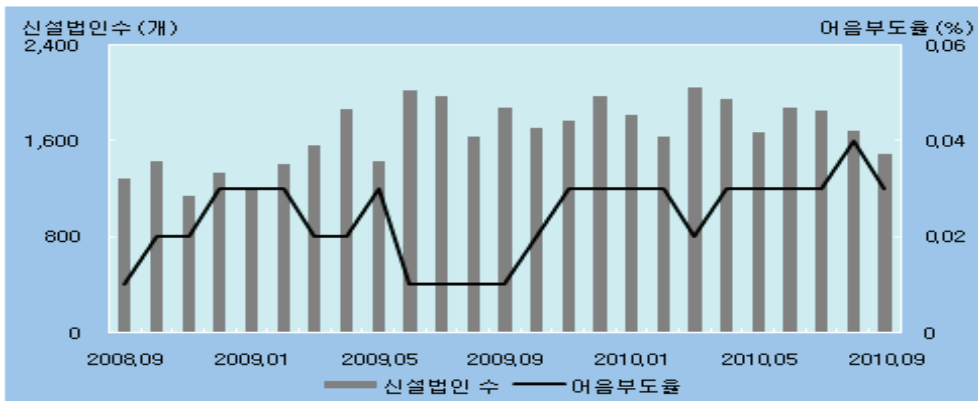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신설/부도법인 배율 상승
  - 9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하락한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9개로 전월대비 15.5%(9개) 감소,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19개로 전월대비 2.5%(3개) 감소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1.3배로 전월(38.3배)보다 상승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1.2배로 전월(49.5배)보다 상승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3	0.03	0.04	0.03	-0.01	-25.0
	부도업체 수	57	42	56	58	49	-9	-15.5
	신설/부도법인배율	40.8	52.0	45.1	38.3	41.3	3.0	-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4	0.03	0.04	0.03	-0.01	-25.0
	부도업체 수	138	122	122	122	119	-3	-2.5
	신설/부도법인배율	50.9	58.6	62.6	49.5	51.2	1.7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신용보증지원 건수·금액 2개월 연속 증가

## ■ 보증지원 금액·건수 증가 및 건당평균금액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9월중 7,934건, 113,010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10.4% 증가, 보증금액 3.8% 증가하였으며,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6.6% 감소하였음.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42.1%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46.7%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9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3,698	7,362	6,814	7,186	7,934	748	10.4	-5,764	-42.1
금액	212,128	132,810	102,529	108,917	113,010	4,093	3.8	-99,118	-46.7
건당평균금액	15.5	18.0	15.0	15.2	14.2	-1.0	-6.6	-1.3	-8.4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을 소폭 상승

- 9월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7.9%로 전월(36.0%)대비 1.9%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24.6%로 전월(26.7%)대비 2.1%p 감소하였음.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2.7%로 전월(32.1%)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종은 31.4%로 전월(31.9%)대비 0.5%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553	2,592	1,359	2,489	941	7,934
비율	7.0	32.7	17.1	31.4	11.8	100
금액	8,227	42,823	20,065	27,818	14,077	113,010
비율	7.3	37.9	17.8	24.6	12.4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보증금액기준 소상공인 지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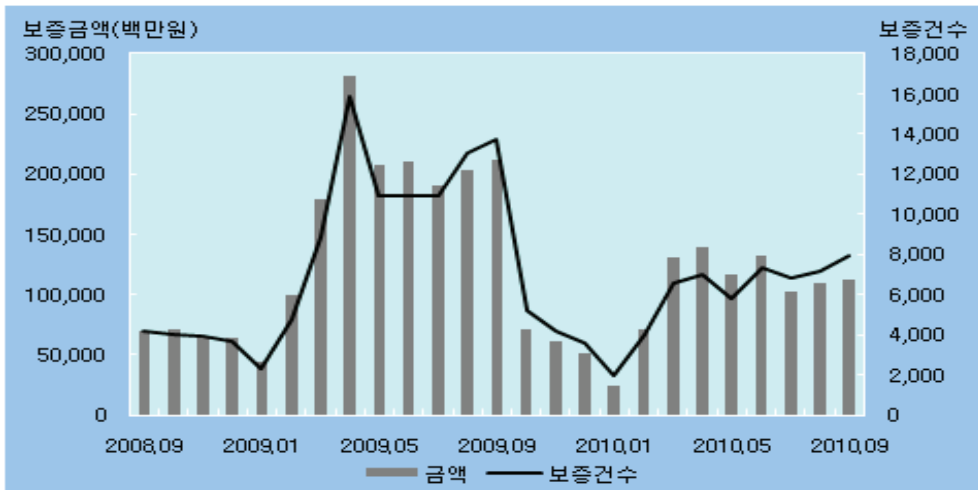
- 9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 지원이 금액기준 93.6%로 전월(92.5%)대비 1.1%p 증가하였으나, 건수는 97.7%로 전월(98.0%)대비 0.3%p 감소
- 반면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4.0%로 전월(5.0%)대비 0.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도 1.4%로 전월(1.5%)대비 0.1%p 감소함. 중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2.4%로 전월(2.5%)대비 0.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9%로 전월(0.5%)대비 0.4%p 증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7	2010.8	2010.9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6,689	7,037	7,749	712
	비율	98.2	98.0	97.7	-0.3
	금액	95,225	100,713	105,764	5,051
	비율	92.9	92.5	93.6	1.1
소기업	건수	98	112	110	-2
	비율	1.4	1.5	1.4	-0.1
	금액	5,067	5,455	4,542	-913
	비율	4.9	5.0	4.0	-1.0
중기업	건수	27	37	75	38
	비율	0.4	0.5	0.9	0.4
	금액	2,238	2,749	2,704	-45
	비율	2.2	2.5	2.4	-0.1
합계	건수	6,814	7,186	7,934	748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02,530	108,917	113,010	4,093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9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9월 서울의 수출은 37.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3% 증가하였고, 수입은 89.0억 달러로 25.7% 증가
- 9월 전국의 수출은 395.1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5% 증가하였고, 수입은 349.8억 달러로 17.5% 증가

## ■ 9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466,862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763,165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96.4% 증가,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으로 전년동월대비 215.9%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176	3,924	4,256	4,090	3,783	3,758	582	18.3
	수입	7,077	8,499	8,746	8,960	8,640	8,899	1,822	25.7
전국	수출	33,922	39,099	41,921	40,949	36,965	39,509	5,587	16.5
	수입	29,757	34,971	35,493	35,443	35,247	34,978	5,221	17.5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9월		2010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176,024	16.4	3,758,142	18.3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14,949	833.4	466,862	48.2
2	자동차부품	182,902	117.1	359,261	96.4
3	반도체	189,893	87.2	271,117	42.8
4	편직물	191,516	10.2	188,878	-1.4
5	무선통신기기	158,955	8.9	164,246	3.3
6	합성수지	159,032	116.0	153,189	-3.7
7	고무제품	124,214	30.7	133,675	7.6
8	합성고무	72,514	198.3	117,009	61.4
9	의류	94,416	10.4	105,961	12.2
10	컴퓨터	134,034	31.7	87,989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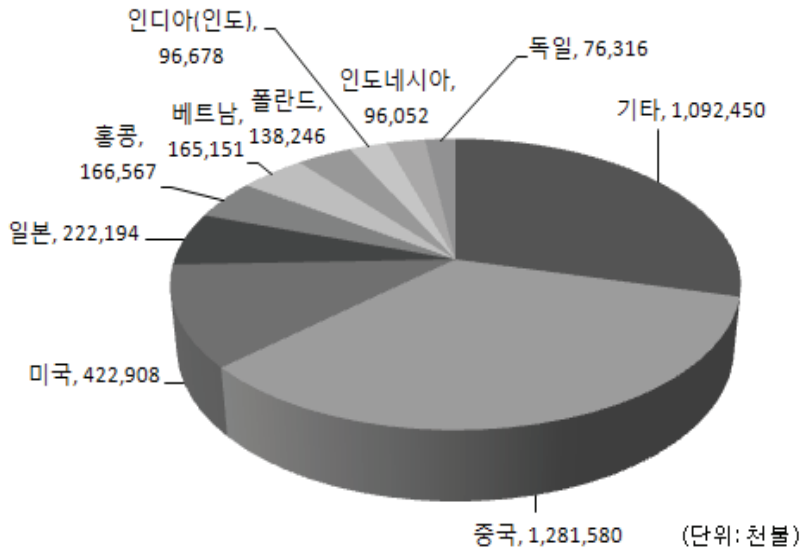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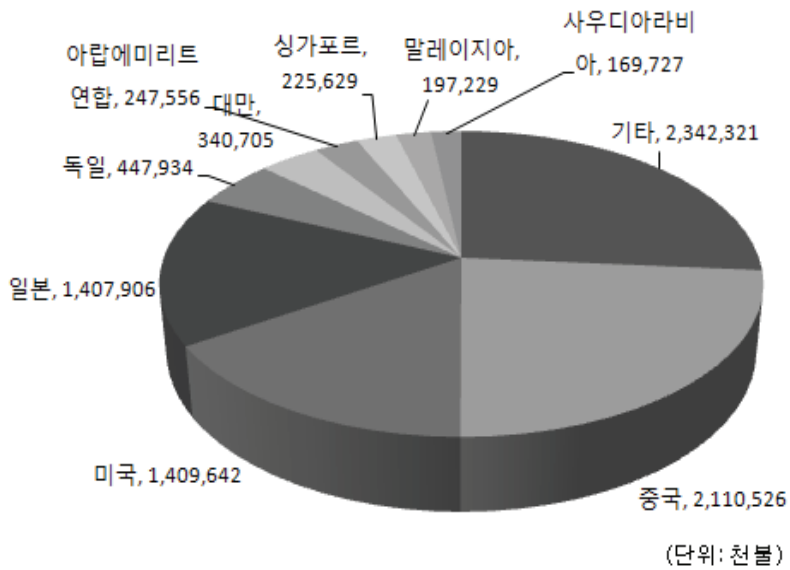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9월		2010년 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7,076,580	-11.6	8,899,175	25.8
1	석유제품	241,596	444.8	763,165	215.9
2	반도체	728,607	70.3	701,722	-3.7
3	컴퓨터	399,908	-3.6	580,869	45.3
4	항공기 및 부품	287,961	207.4	463,892	61.1
5	의류	332,044	80.2	417,148	25.6
6	무선통신기기	134,310	14.2	308,839	129.9
7	자동차	212,117	80.6	305,231	43.9
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70,002	120	223,691	31.6
9	농약 및 의약품	141,641	27.4	207,952	46.8
10	플라스틱제품	204,617	189.7	204,579	-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